

진도군, '암·피부노화 예방' 베타쌈배추 본격 출하



진도군에서 기능성 쌈배추인 '베타쌈배추'가 본격 출하·판매되고 있다.

고소한 맛·건강 기능 효과로 소비자 '인기' 일반배추보다 베타카로틴 함량 148배 높아

진도군은 "겨울철 특산 작목인 진도산 쌈배추인 '베타쌈배추'가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 시장 등을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황산화 작용과 피부노화 방지 등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화된 쌈배추는 진도 지역 농가의 고소득원으로 일반 배추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148배 높고 속이 노란 색깔을 띠는 신품종이다.

특히 항산화작용 및 피부노화 방지는 물론 비타민 A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화한 기능성 배추로 한 포기 당 2,000~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진도군에서 생산된 쌈배추는 일반 배추에 비해 당도가 우수하고 아삭아

삭한 식감과 맛이 뛰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인기몰이가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단 부위가 주황색이고 절단했을 때 잎의 하단 부위 중앙부가 주황색 줄무늬를 나타내 외관적으로도 일반 배추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또 3.3㎡당 일반 배추가 8~10포기 정도 수확되는 것에 비해 쌈배추는 20~22포기 정도 수확돼 소득이 2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쌈배추'는 진도하농농조합법인 등 20여개 농가가 20여ha에서 1,200여톤 가량의 쌈배추를 생산,

연간 15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진도산 베타쌈배추는 잎수가 많고 버려지는 걸없이 적어 품질면에서도 우수할 뿐 아니라 고소한 맛과 건강 기능 효과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래와 자갈, 흙이 섞인 사토질로 물 빠짐이 좋아 쌈배추 재배에 안성맞춤인 진도군은 전국 겨울 배추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 570억 돌파

4월 카드형·6월 모바일형 발행

완도군은 2019년 7월부터 발행한 완도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지난해 말 기준 57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 수당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군민들의 상품권 이용이 증가하여 상품권 발행 액수가 작년 대비 두 배를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091개 업소가 가입돼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지역 화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관련 정책 수당 지급

작년 대비 두 배 훌쩍 뛰어넘어

지역내 소비 경제 활성화 보탬

통합관리시스템 내달까지 구축

군은 완도사랑상품권의 전 연령층 사용을 유도하고 더욱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카드형 및 모바일형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완도사랑상품권 지류·카드·모바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방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하고, 4월에는 카드형, 6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

한편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상품권 판매가 정지된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완도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군민뿐만 아니라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쉽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새싹인삼으로 코로나 극복해요"

케이팜 농업회사법인, LED 시설 활용 새싹인삼 수경재배 눈길

해남에서 최첨단 LED시설을 활용한 새싹인삼 수경재배가 본격화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 마산면 ㈜케이팜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대표적인 약용식물인 인삼을 생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싹인삼으로 재배, 출하를 시작했다.

새싹인삼은 뿌리는 물론 뿌리보다 사포닌 성분을 6~8배 정도 높게 함유하고 있는 줄기와 잎 등 전체를 섭취할 수 있어 기능성 웰빙 농산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년생 묘사를 전용 베드에 이식, 한달 가량 키우면 잎과 줄기가 자라 먹기 좋고, 영양이 극대화된 새싹인삼으로 성장하게 된다.

케이팜은 온도와 습도, 물공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팜 방식의 운영으로 효율을 높이고, 플라즈마 멸균

기를 이용해 균에 취약한 인삼 재배의 단점을 극복해 냈다.

특히 4단 베드를 이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계절이나 기상이변, 자연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케이팜은 묘삼 8,400본을 한번에 이식하는 재배기 8개를 운영, 6만 7,000여본 묘삼을 한번에 재배하고 있다.

상반기 중 20만본, 연내 100만본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으로, 향후 식품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량은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분말 및 원액 등 가공으로 출하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새해 영농의 시작, 무료 토양 검정 받으세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정 서비스 무료 제공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내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총 5,500여 점의 농업

토양에 대해 검정하고 시비 처방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토양 중에 양분이 편중되어 양분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과한 양분으로 영농을 하게 되면 작물 생육이 불량해져

생리장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진군은 매년 토양 검정 서비스를 통해 땅에 담겨 있는 영양상태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안내하고 있다.

토양검정 방법은 농업인 필지 5~6개 지점 토양에서 표토를 걷어내고는, 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고온 체로 쳐서 500g 정도의 흙을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물 재배 전 토양 검정을 받는 것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의 핵심"이라며 "건강한 토양, 건강한 작물을 위해서 꼭 토양 검정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설 연휴 귀성객 방문 자제 범군민 운동



장흥군은 최근 광주·전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이동 및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범군민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지역 및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홍보 현수막을 군 경계 도로변 등 관내 40여 곳에 게시하고, 읍·면 전광판과 향우 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군 자체 시책 및 안

전대책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 주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아들들아! 이번 설날은 오지 말고 용돈만 많이 보내라. 우리도 안 갈란다.' '아들아! 딸아! 이번 설에 오지 마라! 코로나 안 걸리게 우리도 안 갈란다.' 등의 힘든 시기를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골 정서의 구수한 문구가 게재되어 군민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